

창립 30주년 브릿지교회, 김재호 목사 위임예배 드리고 힘찬 도약

벤츄라 카운티 뉴버리파에 소재한 브릿지교회는 지난 25일, 김재호 목사(48)의 담임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힘찬 도약을 알렸다.

김재호牧사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아주사 퍼시픽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에텐선교회 전도사, 에브리데이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김재호 목사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꿈이 있는 비전 공동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신 목회로 신바람 나게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전심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어 “그동안 브릿지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브릿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앞



브릿지교회 담임 목사 위임예배에서 서약하는 김재호 목사와 손지은 사모 ©기독일보

으로도 브릿지교회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임 예배는 김중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의 사회로 승광철 목사(브릿지교회 5대 담임 목사)의 대표 기도예에 이어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 국제총회 총회장)가 “주님이 붙잡은 종”(계1: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홍주 목사는 “창립 30년을 맞은 브릿지교회가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브릿지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토대를 마련한 1대 목사 김승년 목사도 위임 예배에 참석해 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

혜에 감격하며 교회의 부흥을 소원했다.

김승년 목사는 “바울은 비록 육체로는 부족했지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

면했다.

국제총회 미주노회장 박병섭 목사(샌디에고 사랑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담임 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교회 이름이 브릿지인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다리놓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최규남 목사는 “위임한 김재호 목사님은 브릿지교회의 영적인 문으로서 기도로 재단을 섬기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며 “바른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희생과 헌신의 목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또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열마인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했으며, 사랑의 빛 선교교회 김재문 원로 목사의 축도로 위임예배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그레함 목사 집, 부동산 매물로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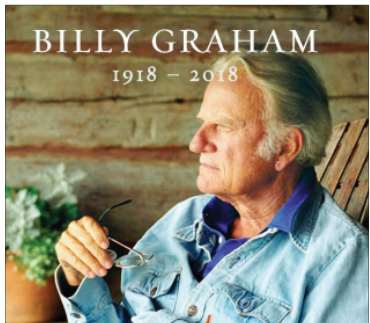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자였던 고(故)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가 사용하던 집이 부동산 마켓에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소재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집은 1940년대 그레함 목사가 구입한 이후 처음으로 마켓에 나왔다.

고인의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은 1900년에 지어졌으며 0.33에이커 대지 위에 2,564스퀘어 피트 규모로 방 4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있다. 가격은 59만9천 달러에 리스팅 됐다.

아름다운 숲 속 한 가운데 위치한 그레함 목사의 집은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현재는 단기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구입 문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제니 리 213)369-9677에게로 할 수 있다.

한편 1918년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태어난 빌리 그레함 목사는 플로리다 성서신학교와 휘튼대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9년 LA 부흥집회를 계기로 1950년 빌리 그레함 복음전도협회(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빌리 그레함 추모사진. ©BEGA

를 창설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도에 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

특히 20세기 후반 복음주의 운동



노스캐롤라이나에 소재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집

에 앞장섰으며, 1973년 서울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에는 110만 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1년 가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라야도요 교수, D.Miss
(플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민태 교수, Ph.D.
(플러신학교) 선교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가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7월 19일(월) ~ 8월 12일(목)
합격자 발표	2021년 8월 19일(목)

■ 가을학기 일정(5주)
 9월 7일(화) ~ 11월 12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 718-5239, (213) 531-7215
admin.kor@itsla.edu

“기독교 문화 창달로 ‘미주 한인 차세대 신앙의 맥’ 이어갈 것”



CBS 기독교 방송 대표 한기형 목사가 개국 기념 예배에서 내빈 소개에 이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CBS 기독교 방송(대표 한기형 목사) 개국 기념 예배가 지난 19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CBS 본사(690 Wilshire place LA CA 90005)에서 열렸다.

한기형 목사는 “앞으로 CBS가 교계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차세대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부장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사장 김향로 장로(충현선교교회)가 기도했으며, 감사한 인교회 원로 목사인 김영길 목사가

CBS 기독교 방송 개국 기념 감사예배 드려

“영적 성장”(벧후 3:1-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길 목사는 “남가주 지역의 영적 성장을 위해 CBS 기독교 방송이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예배는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1부를 마친 후, 2부 축하와 인사 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는 엄미나 아나운서의 사회로 김홍수 CEO가 인사했다. 김홍수 CEO는 인사에 이어 자문위원장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와 후원이사장 김향로 장로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박경재 LA 총영사, 미주 성시와 공동대표 송종명 목사, 코너스톤교회 이종용목사,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유구한 역

사를 가진 CBS 방송이 미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지역에 새롭게 개국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CBS 방송이 이민자들에게 신앙 안에서 큰 소망과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자체적으로 제작될 프로그램들을 통해 1세, 2세와 3세가 함께 공감하는 귀한 방송사로 쓰임 받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또 한국 CBS 이사장인 김학중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은혜한교회 한기홍 목사 등도 영상으로 CBS 기독교 방송의 개국을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나성영라교회 박은성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방송국을 둘러보며 CBS의 개국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촬영에 동참했다.

김동욱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 공개 강의

오는 8월 2일(월) 오후 4시 30분, GMU 미라클 센터 1층



그레이스미션대학의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비즈니스 선교 등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전략들과 실제 NP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강의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지만 인원은 30명으로 한정한다.

공개 강의는 △총체적 선교란 △총체적 선교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의 의미와 혜택 △비영리 단체의 종류 △비영리 단체의 설립절차와 신청 △IRS 및 California Tax Exempt 신청 △총체적 선교의 전략과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그동안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공개 강의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이번 강의는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총체적 선교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NPO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GMU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로 활동 중이며, 매년 3-4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해 왔다.

공개 강의 참석자들에게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며, 추가적으로 자세한 비영리 단체의 설립에 대한 “NPO (Not-for-Profit Organization) & Tax Exempt: A Practical Guidebook from Incorporation to Tax Return (Korean Edition)”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 가능하다. 현재 아마존에서 온라인 주문 가능하다. (<https://www.amazon.com/dp/172783559X>)

관련 문의는 714-525-0088 (Ext 101), 이메일 admissions@gm.edu 로 할 수 있다.

한편 GMU는 복음주의 신학교로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학사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이며 석사학위 과정으로 기독교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과정이 있다.

유학생 I-20 비자, 연방정부 및 주정부 무상학비보조(Pell, Cal Grant), 100% 통신교육, 영어트랙이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다.

김동욱 기자

“팬데믹 시대 유망 직종, 소셜워커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세요”



월드미션대학(총장 임성진 박사)은 오는 27일(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미 서부시간) “소셜워커의 자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사회복지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세미나는 월드미션대학 사회복지학과 디렉터인 이현아 교수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화 213-388-1000 또는 이메일 admissions@wmu.edu로 신청하면 좀 참가번호를 받을 수 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오클라호마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 목사, 대한민국 국민훈장 수상

오클라호마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는다.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등 전세계에서 5명을 선정했는데, 미국에서는 정기영 목사가 유일하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 정회원인 정기영 목사는 2000년 미국 육군 군목으로 입대해 2002년 글로벌 테러리즘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오클라호마에 한국 전쟁 기념비를 건립함으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기영 목사는 1987년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기도 이천시 양정여자 중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했으며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3년 교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정 목사는 1994년 8월 미국 유학 길에 올라 텍사스주 달러스에 소재한 남감리회 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업을 마친 후 2000년 6월, 만 40세의 나이로 미국 육군 군목에 자원하여 입

대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군에서 사역했다.

제대 후에는 미 육군 군목 예비역으로 11년간 재직하며 오클라호마 새빛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며 한인사회, 특별히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을 위한 통역과 봉사에 힘썼다. 또 한글학교를 개설해 교민 2세들과 지역사회에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2010년에는 교회 부설로 한인 봉사센터를 설립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특히 정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2011년에 KWVA(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한국 전쟁 참전용사 협의회)에서 로턴 시정으로부터 엘마 토마스 공원(Elmas Thomas)공원에 약 2에이커의 땅을 기증받아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기념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다.

당시 정 목사는 1년 여 동안 로턴 지역 한인교회와 주민들로부터 약 4만 달러, 한국의 교회들로부터 6만 달러 등 총 10만 달러의 비용을 마련해 오클라호마주에 유일한



오클라호마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 목사(우)와 정중선 사모(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약 5천 여명의 병사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으며,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참전했다가 사망한 유공자들의 이름과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겼다.

새빛연합감리교회는 매년 2차례 참전용사를 위한 위로 행사를 개최하고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대

해 감사를 전하고 있으며 6월에는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들을 위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또 새빛연합감리교회 합창단은 10년째 참전용사 병원과 7개 시설의 양로원을 매 주 방문해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정기영 목사는 “한 평생 한국과

미국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도 많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국민훈장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며 “6.25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에 교회와 지역 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준데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고령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정기영 목사님은 휴스턴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보상이나 메달을 받지 못한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찾아 그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며 “모국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상, 세계 10대 경제국임을 홍보하는 일과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적 가치를 미국 주류 사회에 인식시키고 보급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동욱 기자

낮은울타리 미주 본부 “대학생 리더십 캠프” 개최

2021 College Student Leadership Camp
 Aug 2nd Mon 2pm - 4th Wed 2pm
 Registration: \$30 (숙박 및 식사 included)
 대상: 대학생 및 대학교 신입생
 Place: 52 Warden Rd, Doylestown PA 18901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wooltarius.org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는 대학생 및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1 대학생 리더십 캠프(2021 College Student Leadership Camp)를 개최한다.

8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4일(수) 오후 2시까지 2박 3일간 필라델피아 근교(52 Warden Rd, Doylestown PA 18901)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영어로 진행되며, 대면으로 진행되기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과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돕게 될 이번 캠프는 선착순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30달러다. 등록비에는 숙박 및 식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됐으며, 낮은 울타리의 대학생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등록비를 낮출 수 있었다.

캠프를 주최하는 조희창 목사는 “이민교회에서 자란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

다. 이민교회에서 자라 대학교를 진학한 다음세대들 중 10명중 8명 정도가 교회와 신앙을 떠난다는 통계는 우리를 무척 안타깝게 한다”며 “사일런트 엑소더스(Silent Exodus) 즉 조용한 탈출로 불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고, 이겨나가는 귀한 캠프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이어 “이번 캠프를 계기로 개척 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매해 여름에는 캠프로 만나 은혜를 나누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귀한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Tel. 646-300-4790, wooltarius.org

김동욱 기자

한미연합회 ‘모의유엔(MUN)’ 온라인 프로그램, 2020-2021년도 학생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1-2022년도 모의유엔(MUN)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사고능력,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의유엔 대화와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참가 학생들은 2개의 최우수 컨퍼런스 대회에 참여해 수상을 하였으며,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프린스턴, 스탠포드, 콜롬비아, 보스턴 대학교, 듀크대, 하버드,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주 2시간 30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8학년에서 11학년을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다. 12학년은 이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8일(일)이며,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22일(일)이다.

문의: (213) 365-5999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도교수), 이영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원로), 김경목사(주필리미주대), 신정민목사(동일문 대학), 유관지목사(동일보통대), 김인식목사(KCC공용대)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 / 원장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저지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크라우드펀딩: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새금성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5

“텍사스 휴스턴에서 솟아 오른 ‘성령의 불길’ 을 보다”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텍사스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인터콧 선교회의 미주 “선교캠프”가 열렸다. 작년에도 팬더믹으로 모이지 못했다. 아직 각주마다 팬더믹에 대한 규제가 다른 상황 가운데서 텍사스주는 미리 신청한 집회에 한해 각자의 방역 조치에 맡기고 허가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1,500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말해 주듯 미주 전체에서 각 지방별로 많이 모였다. 2020년도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400명이 넘는 단기선교팀이 열방을 다녀왔었다. 나라마다 외국인 입국을 불허하다가 해제되는 틈이 있을 때마다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졌었다. 아마도 이슬람권 열방에 관한 한 인터콧 선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역하는 선교단체일 것이다.

2021년도를 맞아 팬더믹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나라마다 입국의 문을 열었다. 올해도 미주의 50개 지부에서 봄철 비전스쿨이 모두 열렸다. 9주간의 비전스쿨을 수료한 성도가 600여 명, 그리고 곧바로 FO(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수가 500여 명에 이른다. 대학생 선교사(SM)로 1년 이상 열방으로 나가는 수가 수십 명에 이른다. 다민족적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파키스탄, 가나, 유대인, 백인계, 한국 등 인터콧 선교회의 새 이름인 “InterCP International” 담게 다민족 사역자들이 연합한다.

이번 선교캠프의 참가자들도 많은 나라, 많은 인종이 모였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수십 명의 찬양팀이 앞쪽에서 인도하고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각기 영어, 한국어, 자기 언어로 같이 찬양을 부른다. 그 음성이 기묘한 조화가 되어 천상의 찬양 소리가 된다. 찬양은 능력이다. 찬양은 선교의 꿈을 꾸게 한다. 코로나의 위협을 넘어서 이긴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핍박, 사망으로 영적 공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능히 뚫고 나갈 힘을 준다. 그것이 찬양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힘이 찬양이요 기도이다. 예배는 그런 힘으로 드러지는 것이다.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와 찬양, 말씀과 간증, 선교지 보고 등 온 시간이 성령의 감동으

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의 노래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마귀 권세를 멸하신 분, 장차 다시 오실 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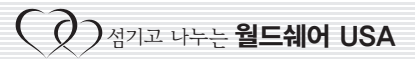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세상의 종교들은 “평화”를 말하며 종교 통합을 주장한다. 가톨릭이 주동이 되어, 정교회,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리고 각 나라의 수많은 종교들이 “세계평화”라는 깃발로 서로가 하나 되자고 모인다. 자기의 종교를 타종교자들에게 전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면 하나 된다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실령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돌을 맞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폭탄에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 사망으로 살아간다. 어떤 위협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나라, 세계선교의 리더십이었던 나라, 이 나라를 다시 회복 시켜 달라고 목놓아 부르짖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달라고 우리를 개독교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2의 평양대부흥 같은 회개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덮어 달라고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방언들이 목소리 외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고.

필자는 보았다. 그들과 함께 하는 성령의 불길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바울을 심문한 벨릭스 총독 소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천부장과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라(Caesarea)로 이송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는 유대인의 폭동을 막고, 로마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할 의도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유대인 폭동은 당시 로마 정부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친서(親書)와 함께 바울을 총독 벨릭스(Felix)에게 보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렇게 해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Felix)를 만납니다. 벨릭스는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행 23:24, 26; 행 24:3, 22, 24, 25, 27; 행 25:14). 벨릭스는 원래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의 출세는 글라우디오 황제(행 18:2) 총애를 받았던 그의 형 필라스(Pallas) 덕분이었습니다. 척스원돌 목사는 필라스(Pallas)가 글라우디오와 네로 황제의 재무장관이었다고 전합니다.

유대 총독 벤티디우스 쿠마누스(Ventidius Cumanus)가 유대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실상가상으로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갈등을 겪자 로마에서 그를 불러 살피는 중에 또 다른 죄를 발견하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를 해임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들 요나단은 쿠마누스 후임으로 벨릭스(Marcus Antonius Felix)를 요청해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벨릭스 이름의 뜻은 ‘행복’인데 그는 탐욕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까지 동원한 잔인한 인물로 평합니다. 그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며 ‘목적에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벨릭스는 악명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 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알비누스(Albinus)총독은 전임자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남

아있는 모든 역사자료들이 벨릭스의 부정부패에 대해 의견이 일치합니다. 성경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고 그를 계속 붙잡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행 24:26). 이는 벨릭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고, 그의 인간 됨됨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양심이 없는 기회주의자였다고 척스원돌은 강조합니다. 벨릭스는 치안을 위한다며 강도로 분류된 400명을 죽입니다. 아울러 벨릭스는 ‘시카리(Sicarii)’라는 강도단에 의해 대제사장 요나단이 살해된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요나단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벨릭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 벨릭스는 3명의 왕실 출신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폴란드 출신 조지 펠릭사(Zony Feliksa)는 ‘벨릭스의 아내들(The wives of Felix)’이라는 논문에서 벨릭스의 세 아내를 설명합니다. 그는 타키투스 자료를 인용하며 벨릭스의 첫 아내는 톨레미왕조의 마지막군주인 클레오파트라7세의 손녀(혹은 증손녀) 모레타니아의 드루실라(Drusilla of Mauretania)라고 합니다.

벨릭스 둘째 아내는 헤롯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막내 딸이자 헤롯 아그립바 2세의 누이동생 드루실라입니다(행 24:24).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투옥한 사람이고, 가이사라 극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설을 하고 하나님 진노로 죽었습니다(행 12장).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세 딸을 두었는데 둘째 딸이 베니게, 막내가 드루실라입니

다. 드루실라의 언니 베니게가 친형제 아그립바 2세(행 25:23)의 아내입니다. 권력을 탐했던 헤롯 가문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미모와 발랄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드루실라는 어린 나이에 소아시아의 콤마게네(Commagene)왕자 에피파네스(Epiphanes)와 약혼했고, 15세에 수리아의 작은 왕국 에메사(Emesas)의 아시수스(Azizus)왕과 결혼했습니다. 벨릭스는 결혼한 드루실라에 반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아시수스왕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둘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총독으로 부임 전 사마리아 사령관 시절에 드루실라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의 정세에 밝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때에 드루실라는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의 분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에 대한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분노와 고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남편 벨릭스에게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줬을 것입니다(행 24:22).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의 결백을 알았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피의 대학살’을 통해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과 폭정을 일삼던 벨릭스는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정서가 황제에게 전달되어 총독에서 물러나 로마로 소환 당했다가 폼페이로 유배당했습니다. 성공회 지도자 F. W. 파라(Farrar)는 ‘벨릭스가 노예 중에 가장 사악했으며, 모든 시대에서 가장 악했으며, 모든 도시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아들 아그립바를 낳았다고 합니다. 벨릭스, 드루실라 그리고 아들 아그립바는 별장의 도시 폼페이로 유배당했습니다. 경관,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휴양지였던 폼페이로 유배된 것도 형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화산이 터졌습니다. AD 79년 8월 24일에 벨릭스 일가족은 화산에 덮여 몰살당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한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세속 문화에 맞선 깊이 있는 예배 인도자 배출돼야”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 학과장 가진수 교수

1989년에 미국 LA에 세워진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 총장 임성진 박사)가 비록 학교는 해외에 있으나 한국교회와 예배 공동체를 위한 역량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예배학 석사 과정을 최근 신설해 운영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신학교로 출발해 기독교 종합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사립고등교육국(BPPE)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현재 600여 명의 학생이 여러 학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학은 56,000여 권의 도서와 E-Library 시스템을 갖추고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 도서관, 강의실, 음악연습실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수진이 눈에 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는 주만 높이리’ 등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타미 워커를 비롯해 한국인 교수로는 ‘내 영이 주를’ ‘주의 인자하심이’의 정종원 교수, 전 예수전도단 예배 인도자 윤주형 교수, 전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의 심형진 교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민호기 교수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예배학과 초대 학과장을 맡고 있는 가진수 교수는 한국의 다음세대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예배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한다. 가 교수를 서면으로 만나 월드미션대학교와 예배학과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가 교수와 일문일답.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침례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얼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했으며 서원했습니다. 이후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ThM)과 미국 풀러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박사과정(DMin)을 마치고, 플로리다 주 The Robert E. Webber Institute for Worship Studies(IWS)’에서 예배학박사(DWS)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예배와 찬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예배와 찬양 인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의문들이 생겼고,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WMU 예배학석사과정 디렉터 가진수 교수 ©가진수 교수 제공

배가 무엇이며, 찬양의 선곡, 임재, 기름 부으심 등 찬양 인도, 예배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조금은 피상적이었거든요. 보다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10여 년부터 예배 전문 사역기관인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Global Worship Ministry)’와 ‘워십리더코리아(Worship Leader Korea)’를 세워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글로벌 예배 심포지엄> 등 국내외의 예배관련 세미나와 집회를 주관하고, 예배 매거진, 큐티, 예배도서 등을 발행하면서 성경적 예배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 교회와 예배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대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 예배학 석사과정(MA in Worship Studies)’(wmu.edu/maws)의 초대 학과장을 맡아 ‘현대 예배학’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예배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배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예배학 석사과정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진으로는 ‘내 이름 아시죠’ ‘나는 주만 높이리’ 등 수많은 베스트 찬양의 작곡자이자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타미 워커(Tommy Walker), 현대 예배학의 거장인 듀크 신학교의 레스트 루스(Lester Ruth) 교수, ‘아트 오브 워십’ ‘에센셜 워십’의 저자로 칼빈대학교에서

크리스천 현대 예배학을 강의하는 그렉 슈어(Greg Scheer) 교수, 풀러신학교의 세계적인 예배학의 사실인 브레임 예배센터의 에드윈 윌밍턴(Edwin Willmington) 교수, 예배와 찬양과 관련한 전문적인 많은 책들을 펴낸 탐 크라우터(Tom Kreuter)가 있습니다.

한국인 교수로는 정종원 교수, 윤주형 교수, 심형진 교수, ‘민호기 교수, 김섭리 교수 등의 현대 예배와 찬양의 전문가들이 저와 함께 현대 예배와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MU 교수진. 가진수 교수, 정종원 교수, 김섭리 교수본 과정의 입학에 위해서는 정규 석사과정(MA)이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에 준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공과는 상관없으며,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거나 교육학, 음악을 전공한 분들에게는 성경에 관한 유사 과목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 및 사역자들에게는 입학 장학금을 비롯해 사역 장학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예배학 석사과정의 커리큘럼은 크게 성경적 예배의 이론과 실제로 나누는데, 성경적, 신학적 기초과목으로는 ‘구약과 신약 개론’, ‘조직 신학’을 배우며, 리더십과 영적 훈련 과목으로는 ‘지도력 개발’과 ‘예배 영성과 예배자’ 과목을 예배 신학과 역사 과목으로는 ‘예배 신학’ ‘예배 예술’ ‘현대 예배학’ ‘예전과 예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예배 과목으로는 ‘예배와 교회 음악’ ‘예배 찬양 인도학’ ‘예배 모델과 디자인’ ‘예배 인도의 이론과 실제’ ‘찬양 인도와 예배 팀 사역’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학과에서 다음세대들에게 바라는 예배나 워십, 신앙에 대해 요청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이며,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차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예배로서의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의 남은 6일을 살아가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넘쳐야 하고, 그 어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월드미션대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온라인 기반인 무들을 통해 강의를 제공해왔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정식 온라인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예배학 석사과정은 학교의 온라인 기반의 완벽한 시스템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LA와 뉴욕, 태국 등 전 세계 15명의 학생들이 작년부터 전혀 어려움이 없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전의 오프라인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학습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줌(Zoom) 등의 온라인 툴들을 이용해 예배와 찬양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나누며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모일 수 있어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들을 흡수하며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 부분에서의 위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내적 위기 즉 영적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약화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을 하는 곳이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할 많은 일들이 있고 사역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그동안 분주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경배와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일 공예배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비록 지금 위기의 시대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석사과정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조성호 기자
입학문의: jsoogah@wmu.edu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조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국 백인 주류개신교는 증가, 복음주의자는 감소”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 줄고 유색인종 기독교인 늘어 연령대 가장 낮은 종교는 이슬람-힌두교 및 불교-무신앙순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백인 기독교인의 감소는 둔화된 반면, 주류 개신교가 백인 복음주의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은 미국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발표된 2020년 미국 종교 인구 조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46만 개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종교단체 및 자치구 별로 세분화하여 작성됐다.

종교와 무관하거나 무종교라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 집단에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매일 기도 생활은 하지만 특정 신앙을 고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으며, 2018년 최고치(25.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가운데 백인 기독교인들

의 비율은 2018년 42%에서 2020년 44%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백인 주류 개신교인은 2016년 (13%)에 비해 16.4%로 증가했다.

반면, 백인 복음주의자는 2006년 (23%)에 비해 14.5%로 줄었으며, 백인 가톨릭 신자는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8년 (10.9%)에 비해 11.7%로 늘어났다.

그러나 백인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중위연령으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56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백인 가톨릭 신자가 54세로 그 뒤를 이었다. 백인 주류 개신교는 흑인 개신교와 같은 50세로 나타났다.

반면 이슬람교인은 중위연령이 33세로 모든 종교 집단을 통틀어 가장 어렸다. 그 뒤를 이어 힌두교인과 불교인이 36세, 비신앙인이 38

세, 히스패닉 개신교가 39세, 히스패닉 가톨릭과 정교회 기독교인이 42세로 나타났다. 유대교인의 중위연령은 48세였다.

또 유색인종 기독교인은 2006년 23%에서 2020년 26%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비중이 커졌다. 이들은 민주당원(32%) 중에서는 가장 큰 종교 집단에 속했으나 공화당(14%)내 비중은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미국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 33%는 공화당원, 35%는 민주당원이며, 30%는 무소속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양당 모두에서 무소속 성향을 보인 미국인은 민주당원의 23%, 공화당원의 13%로 나타나, 2006년 민주당원의 9%, 민주당원의 4%에 비해 급증했다.

미국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

한 자치구에는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즈가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와 애리조나 주의 나바호가 공동 2위에 올랐다.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하지 않은 자치구로는 미시시피 녹수피와 파놀라, 앨라배마 주 코넬리 카운티가 차지했다.

앨라배마에는 흑인 개신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미시시피 흄즈(68%)와 백인 복음주의 신자가 가장 많은 매리언 카운티(64%)가 나란히 자리했다.

백인 주류 개신교인의 비율은 미네소타 주 포프 카운티(37%)가 가장 높았으며, 백인 가톨릭 신자는 아이오와 주 두부케(45%)가 가장 많았다.

히스패닉 개신교 신자는 텍사스 주 이달고 카운티(21%)가 가장 많았고, 인근의 사파타 카운티는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59%)가 가장 높았다.

다민족,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가톨릭, 아시아계, 태평양 섬 주민이

포함된 기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사우스다코타 주에 위치한 오글랄라 라코타 카운티(44%)였다.

유대인 미국인은 뉴욕주 록랜드 카운티(18%)에 가장 집중돼 있었고, 이슬람계 미국인은 퀸즈 카운티(5%)에 가장 많았다. 미국 불교인은 하와이의 마우이(5%)와 하와이 카운티(5%)에서 가장 높았고,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7%)인 것으로 보고됐다.

종교에 속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은 워싱턴 주 산후안 카운티(49%)에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며, 후기 성도교회 교인은 유타 주가 가장 높았고, 아이다호 주 메디슨 카운티(68%)가 뒤를 이었다.

공공종교연구소 CEO인 로버트 존스는 이번 조사가 “미국 인구조사국이 1957년에 마지막으로 종교 관련 자료를 수집한 이래로 미국 종교에 대한 가장 상세한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美 남침례회 선교사들, 도쿄올림픽서 복음 전파

Game on for IMB Olympics ministry team

By Caroline Anderson, posted July 23, 2021 in International Mission Board, Sports



©배티스트프레스 보도화면 캡처

2021년 도쿄 올림픽을 맞아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사사회(IMB) 소속 현지 선교사들이 일본 기독교인들과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배티스트프레스(BP)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인구의 99%가 예수를 모르는 일본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남침례회 동아시아 선교사들은 일본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손잡고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동행하며 기도하고, 영어 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

IMB 선교사들은 올림픽기를 단

이동식 카트를 이용해 일본 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눈다. 이들은 경기 이틀 만에 340명에게 기독교 자료집을 나눠 줬다.

선교사들은 도쿄침례교회를 비롯한 일본 기독교인들과 손잡고 2020년 올림픽 기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팝업 커피하우스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연기됐다.

IMB 선교사 스콧(Scott)과 줄리 브래드포드(Julie Bradford)를 비롯한 일부 팀원들은 오카야마 시로 초대됐고, 그곳의 한 성도와 교회가 카트를 이용한 사역을 지원

해 줬다.

혼잡한 지하철역 입구 등 교통량이 많은 곳 인근에서는 영어를 활용한 전도도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는 변화한 거리나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옆에 잠시 멈춰서서 영어 연습을 한다.

IMB 선교사들은 이 사역을 ‘5분 영어’라 부른다. 피어스 화이트 선교사는 “5분 영어는 단기간에 다양한 이들과 만날 수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선교사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관심이 있는 이들을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프 루미스 선교사는 “우리 팀은 올림픽 첫 봉사일에 45개 복음서 관련 자료를 나눠주고, 29명의 사람들과 그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지역교회 동료들은 오랜지색 세발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고 전했다.

IMB 선교사들과 일본 기독교인들은 카트에서 아이스커피와 녹차, 물 등을 나눠줬다. 스콧 선교사는 “우리와 소통하고 전도지를 받아간 이들이 이를 살펴보기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교회가 이를 통한 연결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해진 기자

미국 흑인 기독교인 41% “하이브리드 교회 선호해”

미국 바르나 리서치(Barna Research)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중 흑인 기독교인의 41%가 대면 및 디지털 예배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회 모델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7%는 교회가 디지털 예배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2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밀레니얼 커피의 브리어나 퍼커 목사를 비롯해, 어반 미스트리, 리드 NYC, 미국성서학회, 컴패니언과 협력하여 바르나 리서치가 ‘전염병이 흑인 신앙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된 온라인 조사이며 미국 흑인 성인 1083명과 흑인 교회 신도 822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수집했다.

바르나 리서치는 이번 결과가 “전염병이 흑인 교회 목회자들을 혁신으로 이끌었고, 전염병 기간 동안 디지털 방식으로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능력을 시험했음을 보여준다”며 “지금도 교회는 코로나 시대의 규제를 벗어난 가운데, 목사와 교인들은 이 변화가 계속 목회 전략의 판도를 어떻게 형성할지 궁금해한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작년 9월 기준으로 흑인 성인 5명 중 3명은 전염병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데믹 동안에

교회에 참석한 흑인 성인의 약 47%가 “디지털 교회에 더 개방적”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6개월간 온라인으로 교회를 다닌 동일한 비율의 사람들은 향후에는 대면 모임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전염병이 한창일 때, 대다수 흑인 및 히스패닉 교회는 백인 교회보다 지역 사회에 기질 전염성을 우려해 교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뉴욕시가 공개한 자료에서처럼, 흑인과 라틴계가 코로나19 사망 비율이 백인보다 두 배 더 높았던 추세를 반영한다.

바르나 리서치는 “대다수의 흑인 교회 신도들(64%)은 자신들의 교회가 전염병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들이 소규모 교회에 비해 디지털 및 하이브리드 공간을 수용할 준비와 자원을 더 많이 갖췄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많은 흑인 미국인들이 출석하는 브루클린 소재 ‘기독교 문화 센터(Christian Cultural Center)’의 A.R 버나드 담임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교회가 편리함의 문화(culture of convenience) 속에 있다”며 “교인 상당수가 집에서 예배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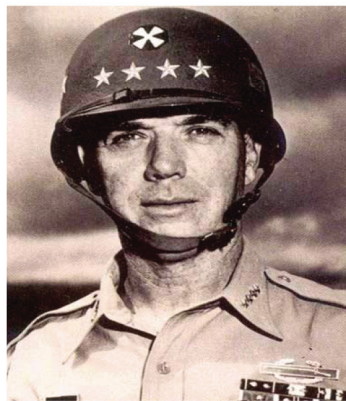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미국 부흥운동가 “19세기 설교가들 메시지에 해답 있어”

미국 '놀란 하크니스 복음주의 미니스 트리즈' 설립자인 놀란 하크니스(Nolan Harkness) 목사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현대 설교의 잃어버린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놀란 하크니스 목사는 칼럼의 서두에서 “오늘날의 설교는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요구하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세기의 설교를 연구해야 했다”면서 “그 옛날 설교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해를 가진 것 같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부흥운동가로서 그는 수 년 동안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설교의 성경적 균형의 기초로 삼았으며 “옛 부흥 운동가들을 조사하며, 지난 세기, 이 나라와 전 세계적에서 큰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권고(exhort)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효과적으로 ‘수준이 하락(dumping down)했다’고 말했다.

하크니스는 “오늘날의 몇몇 성경 음역에서는 이 단어를 ‘격려하는 것(to encourage)’으로 해석해왔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래의 그리스 단어를 마치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식의 매우 연약하고 확신 없는 의미로 바뀌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킹제임스 버전(KJV)이 말한 ‘권고’라는 단어의 뜻이 “훈계하다, 비난하다, ‘도전하다’, ‘꾸짖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참조: Vine’s Expository Dictionary) 권고하라는 그리스어 동사 ‘파라크레오(parakaleo)’가 ‘사람을 옆으로 부르고,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안함’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19세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도전 또는 책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당시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 죄의 간악함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설교하며 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로 그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선언한다”며 “19세기 설교자들이 스스로를 궁수



놀란 하크니스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archers)로 보았다면, 그들이 사용한 화살은 돌과 같은 마음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었다. 옛 설교를 연구한 결과, 설교자들은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훈계와 질책의 화살을 사용했고, 그 결과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참된 회개는 설교자와 교인 모두 ‘권고’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하크니스는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설교자들과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인본주의 철학(philosophies of humanism)을 믿도록 유혹적이고 효과적으로 세뇌되어 왔다”며 “인본주의의 기본적 모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일부는 악하게 변한다’는 것이나 성경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의 설교자들이여, 당신의 설교를 재평가하라. ‘권고’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라. 그런 다음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라”며 “과녁은 바뀌었다. 화살을 바꿔야 사역의 열매도 바뀔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유진 기자

갤럽 “교회 신뢰한다” 공화당원51%, 민주당원 26%

미국 갤럽이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사회 기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갤럽은 올해 6월1일부터 7월5일까지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자치구(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성인 1381명을 대상으로 ‘기관 신뢰도’ 여론 조사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미국의 주요 사회기관 16개에 대해 가진 신뢰도를 비교 분석했다.

올해 조사에서 공화당원은 민주당원보다 교회나 기성 종교, 군, 경찰,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원은 공립학교, 신문사, 대형 IT 회사, 의회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37%는 교회나 기성 종교에 대해 ‘대단히’ 또는 ‘꽤 많이’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공화당원 혹은 지지자들은 51%, 민주당원은 26%가 이에 동의했다.

양당 모두 과반수는 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공화당원은 78%, 민주당원은 62%가 군을 ‘대단히’ 혹은 ‘꽤 많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당파별로 가장 극명한 의견 차이는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도였다.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지지자의 62%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혹은 ‘꽤 많이’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과 지지층은 13%만이 신뢰했다.

양당 간에 두 번째로 큰 격차(45%)를 보인 부문은 경찰이었다. 공화당원의 76%는 경찰에 대해 ‘대단히’ 또는 ‘꽤 많이’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은 3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인의 70%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신뢰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군대(69%)에 대해 높은 신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51%가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의료 시스템은 미국인의 절반 이하(44%)가 ‘대단히’ 또는 ‘꽤 많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에는 의회, 텔레비전 뉴스, 대기업, 형사 사법제도로 나타났다.

16개 기관 중 2020년 이후로 신뢰도가 상승한 기관은 경찰이 유일했으며, 작년보다 3% 상승했다. 반면 공립학교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41%에서 올해 32%로 크게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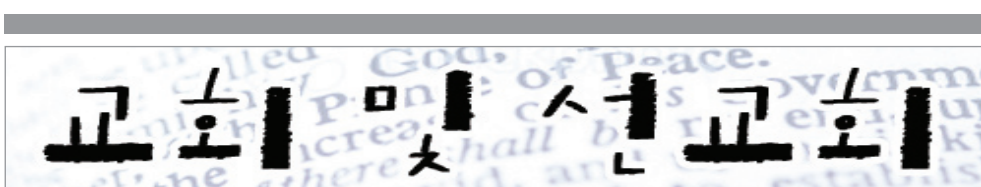
이는 이번 조사가 마스크 의무화 및 공립 학교 교육에 성전환 정책과 비판적인 종이론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된 시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회나 대기업에 대한 신뢰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갤럽 연구 자문위원인 메간 브레넌은 미국인의 신뢰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일반적인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브레넌은 “2020년에는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에 대처하며 몇몇 특정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며 “여기에는 의료 시스템, 공립학교, 중소기업, 기성 종교 및 은행을 포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공공 보건 및 재정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일부 사업 및 사회 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이 5개 기관들에서 신뢰도가 가장 크게 떨어졌지만 전염병 이전인 2019년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침 순결회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청년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깨우고 02인2세를역임하며, 아민가정을지키며, 선교영광을준증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침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엔데) (소세베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소, 친 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산티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할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청년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목)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교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금)
종교개혁기념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기념 예배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들 MP제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0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양부 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전 8:30(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종교개혁 기념 11시(금요일주중예배: 오후 7:30)
1954 Ronald St., Norridge, CA 91365 EM: 오후 1:30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T.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부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 최소 1,170명”



지난 201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의 마지막 날,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시위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교일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4일 중국 내 탈북민 50여 명이 강제복송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을 둔 한국 등 외국의 탈북민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는 최소 1천170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며 지린성 창춘교도소의 남성 탈북민 450명을 비롯해 두만시 325명, 장백현 47명, 지린성 린장시 104명, 단둥 180명, 그리고 라오닝성 선양에 64명 등의 탈북민들이 갇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붙잡아 투옥한 뒤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 등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들 탈북민들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입장문에서 “중국은 1951년 국제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문을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이와 관련, “하지만 이 단체(휴먼라이츠워치)가 밝힌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23일 VOA에, 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북한 주민을 제외하고 탈북민 500~600명이 수감돼 있다는 지적은 중국 내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동안 탈북 단체들이 사람들을 안 데려오고 (중국이) 체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추론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과거처럼 탈북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북한에서 직접 넘어오는 탈북자가 거의 전멸상태다. 그럼 이 500여 명이란 숫자는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잡힌 사람들일 텐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추세는 (중국 안에서) 가정이 있거나 오래전에 온 사람은 풀어주는 추세”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돼 복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구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솔티 의장은 NKFC와 연대한 단체 회원들이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매우 분노한 상황이라며, 오는 29일 월례 총회를 열어 올해 ‘탈북 난민 구출의 날’에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예배당 폐쇄 이어 온라인 예배도 급습…중단 명령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른비언약교회 제공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과 경찰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던 광둥성의 한 교회를 급습해 설교를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중국 보안요원, 경찰 및 공무원들은 선전시에 위치한 ‘선전 삼위일체 복음 추수 교회’를 에워싼 뒤, 줌(ZOOM)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마오 지빈(Mao Zhibin) 목사와 주 엔칭(Chu Yanqing) 장로에게 설교를 중단하라고 강요했다.

이 사건은 ‘호프(Hope)’라고도 알려진 교인인 시 밉글레이(Shi Minglei)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했다. 당시 온라인 예배에는 밉글레이 씨도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오 목사와 선령 장로는 2018년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가 주도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목회자 439명에 속해 있다.

왕이 목사는 이듬해인 2019년,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올해 4월, 중국 당국은 온라인 줌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른비언약교회 성도 여러 명을 체포했고, 모

든 종교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기독교 박해 단체인 ‘국제기독교권선(ICC)’에 따르면, 당시 교인들은 부활절 일요일 자택에서 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6명의 공안 지도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이들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성도 5000명 규모의 이른비언약교회는 2018년 공산당이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한 이후 대면 모임이 중단되자 온라인 모임을 선택했다.

오픈도어스 USA에 따르면 중국에 약 9,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중공 당국은 올해 종교인들에 대한 새로운 행정조치가 시행되자, 성경 앱과 크리스천 위챗 공개 계정을 삭제하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와 관련한 세계에서 가장 나쁜 국가 중 하나로 ‘세계감시목록’에 올라 있다. 2020년 12월 미국 정부는 중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중국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북한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있다.

김유진 기자

이동환 목사 “마음먹고 쿼어 운동 해보려 한다”



이동환 목사(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변호인단이 연회 재판 선고 후 입장을 표명하던 모습.

‘동성애자 축복식’으로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이 확정된 이동환 목사가 “한국교회를 향한 쿼어한 질문” 큐엔에이 단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2일 SNS를 통해 “2019년 인천쿼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제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교단으로부터 재판을 받아 정직 2년 처분을 받았고, 항소를 하였지만 8개월째 열리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며 기도회를 열고 그러다 천막농성까지 하게 됐다. 허망하게도 결과는 재판비용 지연납부로 인한 재판각하가 되었다. 그렇게 감리회 재판투쟁은 마무리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저는 감리회의 아니 한국교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알 수 있었고, 빈약하지만 악의적인 선동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휩쓸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며 “저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온갖 저주와 비난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런 모습들을 마주하며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속상한 마음과 함께 점점 변화에 대한 열망, 새로운 운동에 대한 갈급함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의 소수자 혐

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는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고,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달랐다. 그는 ‘이상하다’ 손가락질받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살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며, 그 존재를 환대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마음 먹고 쿼어-엘라이 운동 한 번 해보려고 한다. 단체 이름은 ‘큐엔에이’로, Question and Answer 이란 뜻도 있고 Queer and Ally 라는 뜻도 품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며 “큐엔에이는 ‘한국교회를 향한 쿼어한 질문’이라는 모토로 교회들을 향하여 질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모든 존재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답을 찾아가겠다”며 “아직 사무실도 없는 신생 단체다. 저와 간사님 두 명으로 사무국을 꾸렸고, 이제 여러 일들을 해나갈려 한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서울시, 교회 십자가탑 전수 조사 및 철거비 지원 논란



한 교회의 십자가 첨탑(상기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재설치 지원금 없어 ‘종교탄압’ 국민청원도

서울시가 교회 첨탑(십자가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평가에서 미달될 경우 철거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재설치에 대한 지원금은 없어 ‘철거비 지원’을 명분으로 한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태풍 시즌을 앞두고,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을 전수조사하고 최대 4백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서울시 소재 교회 7,919개소를 파악해, 높이 4m가 넘는 첨탑,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건축물 정기 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

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며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백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후 구청에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들에는 높이 4m 넘는 첨탑은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설치 비용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 대다수가 미자립교회인 상황에서, 낮은 안전 평가를 받을 경우 십자가탑만 철거될 우려가 제기되는 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년간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1,800여 건이나, 이 중 교회 첨탑 사고는 2건에 불과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십자가 탑 철거를 반대합니다’라고 올린 청원자는 “기존의 작은 교회들은 철거대상 등급이 나올 것이고, 십자가 첨탑은 수없이 많이 철거될 것이다. 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다 하지만 다시 세우는 비용을 작은교회들은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고 교회탄압”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세브야예배 오후 8:00
세브야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브야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정)예배 오후 2:00
세브야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브야예배 오전 6:00
셀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브야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선포로 활약하는 세계교회 연합의 선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브야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브야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세브야기도회 : 오전 6:00(화-금)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브야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브야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세브야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브야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마침내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몰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예)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세브야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브야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브야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브야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중세교회사	Daniel Min
Wed	8:30 PM - 10:30 PM	시편강해2	Timothy Song
Thu	7:30 PM - 9:30 PM	고린도전후서	James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2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탕부 하나님을 만나다



강양규 목사
남가주새언약교회

오래전 읽은 책 가운데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이다. 탕자를 영어로 "프라디갈(Prodigal)"이라고 한다. 이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다. 팀 켈러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붙여서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이라고 표현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이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해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벗은 발로 뛰어가 끌어 안고 입 맞추며,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심기가 불편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탕자의 친형인 첫째 아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탕자의 비유를 그릴 때,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 옆에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노려보는 한 사람을 그렸다. 그가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

첫째 아들은 몹시 화가 났을 것이다. 아니 못마땅히 여겼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것도 그렇지만 그를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것 역시 무척이나 못마땅했다. 아니, 그건 사치이고 낭비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런 탕자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 아버지의 은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의 엄격한 기준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어떨까? 아니, 어쩌면 둘째 아들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둘째 아들인 탕자라면 여전히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인 탕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 둘째 아들을 넘어 한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께 그 화살을 돌려 큰 소리로 컴플레인(Complain)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탕자도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이 쉽지 않는 시대이다.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탕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변하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겔은 이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dialec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은 그 위치와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노예를 필요로 하였고, 노예는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점차 노예의 노동이 숙련되고 유용한 경우가 되면, 노예는 누구보다도 주인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노동이 중요한 만큼 주인은 노예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노동을 통한 인정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의 권력 구조를 변경시키는 일입니다. 근대의 시민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신분의 차별이 무너지는 자유로운 사회가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는 계급투쟁의 밑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21세기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급의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며 아직도 상황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적 대안의 참혹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계급투쟁의 유혹을 받습니다.

서구의 복지국가 정책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충분히 높은 세금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래된 가르침은 계층과 계급의 문제를 기독교적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 노예는 안식년과 희년 때 자유를 주라는 교훈을 발전시켜, 당시의 노예를 형제처럼 대우하라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의 노예가 신자인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하라"(엡 6:5)고 가르치며, 주인을 향하여는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너의 신분이므로 너를 판단하지 않으신다"(엡 6:9)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회심시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자유민이 되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복음은 신분과 계급의식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주인의 소유가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제국 시대의 노예는 전체 인구의 약 20-25 퍼센트에 이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예는 로마의 정복 전쟁에서 발생한 포로였으며, 이후에는 노예가 자녀를 낳으므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당시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노예가 있었는가 하면, 가사, 가정교사, 서비스나 상업에 참여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존재하던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커다란 정신적 변혁을 주도하는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급의식을 말끔히 정리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평등사상을 주장하며, 노예를 포함한 성도의 가족(household)이 사랑의 가족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가르치며 배려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철학자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불변의 고정적인 관계

이준수 칼럼

하늘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



이준수 목사

이다. 그래서 대학에 특별 편지를 보내 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작은 어머니를 통해 미네아폴리스에 사시는 어떤 교포분께 연락하여 가끔씩 나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미국에서 홀로 두 달 동안 살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같은 국적기는 미네아폴리스까지 취항하지도 않고 다른 외국 항공사도 서울에서 바로 가는 직항노선이 없이 중간지를 경유해야 해 비행기를 갈아타고 짐을 다시 찾아 부쳐야 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그래서 또 부리나케 알아본 결과 'United Airline'이 동경에서 짐은 다시 부치지 않고 그냥 갈아타기만 하면 된다고 해 떠나기 이틀 전에 표를 구입하였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티케팅을 하러 가니 UA 직원들도 날 보고 황당했는지 사무실로 데리고 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일일이 물어본 후 가장 늦게 비행기에 태웠다. 마침 매니저가 한국분이셔서 그분의 권한으로 이코노미석이었던 내 자리를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고 여러 가지 극진한 배려를 해주셨다.

그래도 난생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마음이 몹시 불안했고 혹 실수라도 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있던 어떤 백인 남자가 승무원에게 자기가 날 도와주고 싶다고 하며 내 옆 좌석으로 옮겨와 앉았다.

그 사람은 영국인으로 비즈니스차 동경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내가 장애의 몸으로 홀로 여행하는 게 인상 깊다고 말하며 영어를 이토록 잘 하는데 왜 또 영어를 배우러 가냐며 동경에 내려 자기랑 술이나 한 잔 하자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동경으로 날아가는 2시간 동안 위스키 한 병을 다 거덜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기도 미네소타에 가봤다며 깨끗하고 한적한 동네라고 하면서 나에게 미국 도시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얘기해줬다. 기내식을 먹을 때도 손수 뚜껑을 열어주고 음식을 흘리면 닦아주는 등 큰 도움을 줬다. 또 동경에서 3시간 정도 대기하는 동안에도 먼저 가지도 않고 나와 함께 기다려주며 다시 비행기에 타야 해서 헤어질 때는 "I believe you will be a great man!!"이라며 뜨겁게 격려해주었다.

이와 같이 홀로 떠나는 첫 외국 여행길에 이처럼 좋은 분을 만나 불안과 근심을 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보통 사람들은 내 옆에 앉는 것조차 피하려 하고 함께 있어도 여행하는 내내 말 한마디 안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비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나로 하여금 끊임 없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나의 불편한 삶을 보완시키고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

이런 모든 분들의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 역시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휠체어를 탄 필자가 미네소타주립대학 ESL 과정에서 신생 및 학생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이준수 목사 제공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즈제작
 굿미포고
 머그컵8원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년 내 사고보험이 면허유지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사랑실천의 생명운동

요한일서 3:13-24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사랑과 미움이 상반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듯이 사랑의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가고 미움의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본문 13,14절은 아직도 사랑과 미움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미워함을 받는 사람보다도 계속 미워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9에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니...(중략)...하나님께서로써 낫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사람 즉,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받고 구원 얻었다고 간증하며 자랑하면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은혜도 구원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파멸을 일삼는 마귀 앞잡이에 불과한 신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고 전도하면 배척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이름 팔아 사기를 치거나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날강도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인격도,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은 옛날 죄악근성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10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중략)...그 아우의 행위의 의로움이니라”고 하십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인은 농사지은 것 가지고 속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

야 했음에도 그 아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자기 제사가 거부당한 것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거나 정성의 부족함이 있어서이지 상대방이 홀륭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근본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고 분별력을 갖지 못했으니 옳고 그름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불의와 죄악으로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아벨을 죽였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로부터 미움과 환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11-12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중략)...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당하는 핍박은 감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남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실수한 죄값으로 당하는 행패를 팽박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맞을 짓을 해서 얻어 맞으면서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았고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즉 마귀 그늘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의 동기는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중략)...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미움으로 살기(殺氣)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실천을 통한 생명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도 버리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탄생으로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빼앗기신 그 목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속 받을 수 있는 죄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실천을 통

한 생명운동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성과 때문에 내 육체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준다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통하여 시작된 살인은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습니다.

요즘 뉴스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열여섯 명을 죽이고 여섯 명을 불구자로 만들고 상처를 입혀 총 24명을 해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잡힌 사람은 다섯을 죽이고 여덟 명을 상처를 입힌 사람이 태연스럽게 끌려 다니면서 현장검증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잘 사는 사람이 밟고 세상이 미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해서 돈 벌어 살 수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주어진 여건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밥 먹고 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 가로채 먹으려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죽이는 못된 짓을 해놓고 세상이 미웠다고 말을 합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미웠으면 잘사는 사람들을 해쳐야 하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움의 씨가 자라 다른 생명들을 이윽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명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으로 미움의 씨가 자라나게 되면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참 사랑의 승리가 무엇인가

를 깨달아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씨(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이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되살리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내 목숨 투자할 각오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계시면서 아무개를 도와 주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냥 거절하고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말과 혀로 부담없는 사랑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푸는 사랑의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하고 뜨겁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생명 운동에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보장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미움으로 시작되는 살인은 내가 괜히 미워해서 남을 죽이고 결국 그 죄값으로 나도 죽고 멸망해야 하는 비극을 장만하는 어리석음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누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15:13-14)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540 라디오 코리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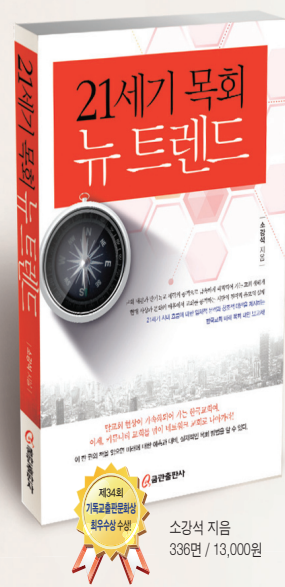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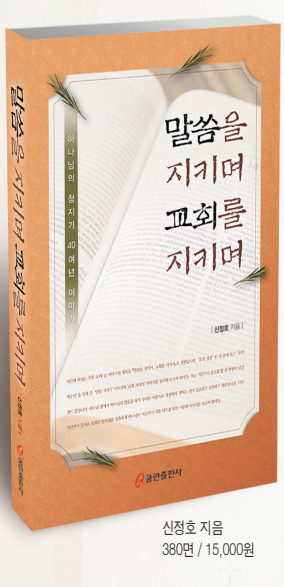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말교회 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생명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길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 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미션 리더 킹 국제평화상, 한국 기독교총회대상, 천상평화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원봉사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집사와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회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전한 강론을 선사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인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회의역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도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회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블의 <블랙 위도우>(2)

마블의 <블랙 위도우>, 비현실적 설정과 현실적 서사 따로 노는 느낌

마블의 환상적 세계관 확장은 왜 허망한가
현실 비판이나 인간 반성, 배제나 약화해서
비현실적 설정 기반으로 서사 꾸리는 약점
<엔드게임> 이후 모든 마블 영화에 나타나

◆서사 예술과 환상: 환상에 기초한 서사 예술의 부각

모든 서사 예술은 환상에 기초한다.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사실들에 대한 기억을 마음 속에서 이리저리 뒤섞고 조작해서, 현실과 유사하지만 실상 현실이 아닌 독특한 허구적 세계를 만들어낸다.

중세 초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 <디도와 에네아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화의 재미에 탐닉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현실과 괴리된 허황된 것에 몰두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한다고 기록한 바 있다.

참된 신앙은 인간과 세계의 현실을 엄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신화에 탐닉하면 현실 인식이 무뎠어지는 이유 때문이었다.

신화와 문학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판적 인식은 중세 내내 서유럽 전역의 신앙인들과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중세 말엽인 13-14세기에 이르러서 서유럽에서는 소설책은 커녕 이야기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활판 인쇄술이 없어서 책을 만들려면 전부 손으로 필사를 해야 했는데 책을 필사할 줄 아는 고급 인력들은 성경이나 신학 문헌, 혹은 행정과 법에 관련된 문서들을 필사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세 당시의 문학이라 하면 읍유시인이나 유흥극단이 노래하던 낭만적 기사문학, 그리고 이교적 풍습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민중들 사이에 구술로 전해지던 민담이나 전래동화 같은 것들이 있었을 뿐이다. 당시 신앙인이나 지식인들은 이런 서사 예술을 저속하고 통속

적이라 여겨 멀리하곤 했다. 유럽에서 서사 예술이 문화의 주류로 올라선 것은 14-16세기 발발한 르네상스 덕분이다. 중세 말 크게 성장한 교육도시 및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예술적 유희를 죄악시하던 정서가 많이 희석된 데다, 왕족이나 대귀족들이 자신들의 교양 수준을 뽐내는 방편으로 문화 예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유럽 각지에서 문학의 거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다. 피렌체의 단테, 잉글랜드의 초서와 셰익스피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등 오늘날 서구 근대문학의 시조로 인정받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해 걸출한 작품들을 남겼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는 소설과 희곡 같은 서사 예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는 것이 교양 있는 지식인의 제일요소로 여겨져 왔다. 노벨상에 문학 부문이 있는 것도 이런 오래된 인식 덕분이다.

오늘날 서사 예술의 영향력은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극단적으로 증대된 상황이다. 자본, 창의성, 그리고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서사 예술의 힘은 대중문화 전반을 좌우하는 동력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최근의 서사 예술은 갈수록 더 서브컬처 성향으로 편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서사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액션이나 CG 장면이 무척 현란해서 관객에게 서사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온갖 비현실적인 설정이나 요소들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서브컬처형 서사들이 대중문화계 원천 콘텐츠로 각광을



마블의 신작 영화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피노프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스칼렛 요한슨 분)의 단독 서사를 다루고 있다.

받고 있다.

◆서사 예술과 현실: 마블식 환상에 지쳐버린 대중

이렇게 서사 예술 전반이 다분히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제공하는 흥미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는 현상은 문화적으로 볼 때 일종의 후퇴나 다름이 없다.

비현실적 재미를 주로 선사하는 영화, 드라마들은 전통적으로 서사 예술이 가지고 있던 현실 비판이나 인간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는 기능을 배제하거나 고의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런 조류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 대중문화계를 자본으로 장악한 디즈니의 작품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마블이라는 IP(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다.

평론가들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비평할 때, 그 서사 자체로부터 어떤 인문학적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이 영화들이 정말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론가의 평론 자체를 유식하게 보이려 하기 위한 경우가 대다수다.

영화 속에 지극히 부분적으로 반영된 인문학적, 철학적 고찰을 쥐어짜내듯 찾아내서 부풀려 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실상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그 본연의 비현실적 흥미 유발 요소들을 충실히 부각시킬 때, 비로소 감성적 향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현실적인 설정들을 반영하는 경우 그 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번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는 이러한 어설픈 점이 짙게 묻어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슈퍼히어로 설정과 첩보 서사의 결합을 통해 인간을 도구화하는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하려 하지만, 양측의 비중이 애매하게 혼합된 까닭에 비현실적 설정과 현실적 서사가 따로 노는 느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영화의 서사에 몰입이 어렵고 캐릭터의 감정에 공감하기 힘들다.

어설픈 완성도를 지닌 작품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도구처럼 활용되고 버려지는 요원들의 비애를 담은 첩보 서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이슨 본> 시리즈나 <레드 스콧> 같은 작품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느낌이 든다.

만일 슈퍼히어로 영화가 현실 비판이나 인간성 반성 등처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다면, 아예 히어로 영화 특유의 흥미유발 요소들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2019)이다.

<조커>는 원작 슈퍼히어로 코믹스에서 현실적 드라마 요소만 가져오고, 비현실적 설정과 장치들은 모두 배제해 버림으로써 영화가 목표로 하던 인문학적 메시지 전달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블랙 위도우>는 슈퍼히어로 서사의 최대 약점, 즉 현실적 세계인식을 담아내기 어려운 비현실적 설정들을 기반으로 서사 전개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런 약점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모든 마블 영화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고대 다신교 신화 체계처럼 과도하게 부풀려진 세계관과 서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방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지적했던 신화의 정체는, 중국적으로 환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 환상들의 집합체였다.

이러한 환멸은 우선 인간과 세계의 불완전한 현실을 직시할 때 일어나고, 다음으로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현실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보다 내밀한 실상, 즉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한 차례 더 강하게 일어난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 라인업을 보면 마블 서사가 점차 더 통제하기 어렵게 방만해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블 측은 기존 설정과 캐릭터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히 수익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중국 관객들을 의식해서 샹치(중국인 슈퍼히어로)나 이터널스(이터널스)는 중국 감독 클로이 자오가 연출을 맡음 등 새로운 캐릭터들을 대거 발탁했다.

도들이표처럼 뒤풀이되는 같은 주제의 서사들을 어떻게든 수익으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몸부림일 터인데, 과연 의도된 만큼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대중이 슈퍼히어로 서사에 상당한 피로감을 나타낼 만한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마 마블, DC 같은 코믹스 IP들은 향후 슈퍼히어로 서사에 익숙치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조정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또 나쁘지 않은 전망이다. 비현실과 환상에만 몰입하는 영화들의 인기가 한풀 꺾이고, 인간과 세계와 신앙과 문화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풍성해질 시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 등을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써 더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레드 스콧>의 주인공 도미니카 에고로바(제니퍼 로렌스 역), 인간을 비정하게 도구화하는 첩보 서사 측면에서 <블랙 위도우>는 <제이슨 본> 시리즈나 <레드 스콧>에 비해 몰입감이 한참 떨어지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지난 10년 동안 <어벤져스> 시리즈는 서사 예술의 서브컬처화를 주도해 왔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에 라인업되어 있는 <이터널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그리스도인, 미래 넘어 영원 준비하는 사람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주신 강력한 믿음의 도구. 뻔한 미래 거부하기 위해 믿음의 도구 잘 사용해야 의미 없는 반복 거부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반응을 현실의 어려움 좌절하지 않고 시험과 고난 극복을

살아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가벼운 근육통에서 고열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 때문이다. 면역 물질 중 하나인 '사이토카인'이란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될수록 강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이토카인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한 20-40대 청장년들이 '백신 후유증'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 있다는 반응으로 근육통과 고열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부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말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것과 같다. 우리 배고픔에 반응하며 먹는다. 피곤함에 반응하며 휴식을 취한다. 영혼의 메마름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찾는다. 살아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다.

생명력은 불확실한 미래를 거부하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인생도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은 위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반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메타 도구의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에서 어떤 반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자는 최윤식 박사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 학자이다.

저자는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라고 말한다. 현재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기술력 차이는 수년 안에 따라잡힐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앞으로 5-10년은 한국인, 한국 기업, 한국 정부의 미래 생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절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불안하게 드리워진 미래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 어떻게 불안한 미래를 거부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메타 도구의 시대〉는 경쟁의 판을 바꿀 세 가지 도구를 소개한다.

이 세 가지 도구를 메타 도구라고 이름 붙인다. 그리스어 'μετά'에서 유래한 메타(meta)는 '더 높은, 넘어서, 뒤에(이면)'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메타 도구는 '나노'다. 원자 하나하나를 조작하여 제품을 만들고, 생명체를 조작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은 제조방식에서부터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 질문까지 바꾸는 강력한 미래 동력이다.

2015년 8월, 91세 나이였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간과 뇌에 암 세포가 퍼져 죽음을 목전에 두었지만, 머크 샤프 앤드 돔(MSD)이라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나노 기술을 접목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월 6일 완치 판정을 받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테슬라도 고성능 배터리, 차체 등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메타 도구는 '인공지능'이다.

미래는 지능을 가진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로 구분될 것이다. 지능을 가진 스피커와 지능이 없는 스피커, 지능을 가진 기계와 지능이 없는 기계, 지능을 가진 자동차와 지능이 없는 자동차, 지능이 있는 집과 지능이 없는 집 등 모든 분류는 지능 유무로 나뉠 것이다.

세 번째 메타 도구는 '3D 프린터(3D Printer)'다.

3D 프린팅 기술이 수천 년 간의 제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도구를 지배하는 기업이 부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한 손에는 나노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손에 쥐고, 생물학적 도약과 기계와 결합된 신인류 '호모 마키나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간 종이 되어 지구와 우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현재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코로나19라는 변화가 우리를 위기 혹은 기회로 몰아넣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아인슈타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을 상상력이라고 얘기했다. 불안한 미래가 아닌 새로운 미래는 상상력에서 시작된다.

상상력을 우리는 꿈 혹은 비전이라고 말한다. 꿈이 큰 사람일수록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 비전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꿈만 꾸는 사람은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저자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맹목적인 비관론과 비교해 '냉철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일컫을 때 사용되는 말이다.

월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고 한다. 비관론자, 낙관론자, 현실적 낙관론자다. 이들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들은 현실적 낙관론자들이다. 이들 중 스톡데일 장군이 있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낙관주의자는 자신이 지금은 포로로 잡혔지만 특별한 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에 사면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감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월남전이 길어지고 미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들이 전개되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였다. 기대의 무너짐이 반복되자 결국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반면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자신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실적 문제들을 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했다.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그만큼 높았다.

'이미 온 미래(위기)'와 '곧 뒤따라올 미래(기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막연히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태도가 아니라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자세다.

세상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나노, 인공지능, 3D 프린터라는 메타 도구로 앞서가기 위해 노력한다.

살아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다. 정해진 뻔한 미래를 거부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있다. 뻔한 미래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시험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넘어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밝게 빛나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메타 도구의 시대 최윤식 넥서스BIZ | 520쪽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로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라! 메타 도구를 권 자가 미래 시장을 움직인다

앞으로 10~20년은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 시기가 이 시기는 2가지 부류로 나뉠 것이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의 활용이 그 사람의 지능 수준, 업무 수준, 성과 수준 등을 평가하는 결정적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윤식 박사.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es include: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100% 정품', '1100원 상당 100% 할인', '1명 구입시 \$79 +Tax, 3명 구입시 \$225 +Tax, 6명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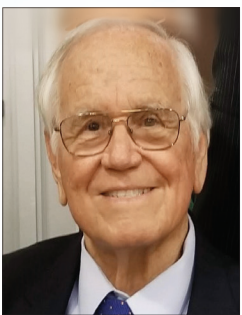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선착순 마감)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대면 또는 ZOOM으로) 맨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통일)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_신사참배)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



(통일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중보기도연합)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탈북구출/북한인권)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통일정치리더십)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흥보팀장



(북한지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북한인권영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씨'



(영어권통일교육)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복음통일네트워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미주기독교일보 생중계: